

금호폴리켐, EPDM 생산시설 증설

〈고기능성 특수 합성고무〉

여수산단에 3000억 투자 준공
내열성·내오존성 등 성능 탁월
초저온 중합 미래형 공장 기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금호폴리켐(주) 여수공장이 3,000억원을 투자해 EPDM(에틸렌 프로필렌 다인 모노머) 생산시설을 증설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금호폴리켐(주) 여수공장 EPDM 생산용 5라인 증설 준공식에 정기명 여수시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EPDM은 고기능성 특수 합성고무로 내열성·내오존성·내약품성이 탁월해 자동차용 차체 실링, 타이어 튜브, 호스, 건설 부자재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신규 증설 설비는 금호폴리켐의 독자적인 ‘초저온 중합’ 기술과 40년 공정 운전 비법이 접목된 미래형 공장으로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원가 경쟁력까지 갖췄다.

금호폴리켐은 EPDM에 재활용 소재 및 바이오 기반 원료를 적용해 지속가능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친환경 차량 소재 수요 증가에 맞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PE)를 기반으로 한 내구성·절연성이 뛰어난 친환경차 전용 부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반 시설 정비, 지역경제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국가산업단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석유화학의 중심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조적 쇠퇴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여수시는 2년간 622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고, 총 3,707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와 함께 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이밖에 연구개발과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에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금호폴리켐은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여수산단의 성장을 견인해 온 기업이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금호폴리켐(주) 여수공장이 13일 EPDM 생산용 5라인을 증설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고흥군, 2025년산 물김 생산량 ‘전국 1위’ 쾌거

16만7399톤...위판액 2311억원

고흥군은 2025년산 물김 생산량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흥군은 올해 1만480ha의 면적에서 총 16만 7,399톤의 물김을 생산해 2,311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38%(4만 6,142톤), 위판액이 7%(149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 4월 30일 2025년산 물김 위판을 마무리했다.

고흥군은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물김 위판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김 생육에 유리한 해황 여건과 양식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물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물김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고흥군수협 구입형·발포형 위판장을 방문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격려했다. 지난 2월에는 전남도,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와 합동으로

250척의 선박을 동원해 불법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을 제거하는 등 김 수급 안정화에 주력했다.

고흥군은 물김 수급 안정을 위해 22억5,900만원을 투입해 △인종 부표 공급 △김 종자 공급 지원 △폐기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물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어장 내 양식 시설물이 신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13일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 제공

구례 경제·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촉구

구례군 경제·사회단체가 노고단이나 성삼재로 향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지리산 국립공원 성삼재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 지역발전위원회, 지구촌환경보존복지연합 구례군지부, 주민들이 참석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환경부의 케이블카 정책 변화가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국

립공원 보존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논의의 핵심 기구인 전문위원회 구성에 지자체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이유는 국립공원 사도 설치 기본 방침에 따라 지자체 간 자율 조정만을 요구한 결과”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구례군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교통약자 편의성 확보 등 다각적인 지역 회복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례=손석봉 기자

순천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순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순천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13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

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감면 받은 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순천=박경식 기자

보성군, 농수산·문화관광 지역인재 본격 양성

6개 고등학교와 업무협약

보성군은 최근 관내 6개 고등학교와 농수산·문화관광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역 특화 산업인 농

수산업과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보성고등학교, 벌교고등학교, 예당고등학교, 다향고등학교, 벌교상업고등학교, 벌교여자고등학교가 참여했으며, 각 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보성=백종두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수북회, 섬마을 환경 정화 봉사활동

여수를 사랑하는 전북인의 모임인 ‘수북회’는 최근 (사)녹색전국연합 해양환경사업단과 함께 남도에서 섬마을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는 수북회의 환경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섬 지역의 해양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봉사활동에는 25명이 참여해 무단 투기된 폐플라스틱, 폐그물, 스티로폼 부표 등 10톤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수북회 최홍열 회장은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일은 이제 특정 기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담양경찰, 메타프로방스서 가족 체험 행사

담양경찰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메타프로방스에서 ‘빠담빠담’ 가족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빠담빠담 가족 합동 미션 행사는 △우리가족 퀴즈풀기 △지문 사전등록 △경찰 제복 체험 △가족화합 풍선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담양경찰은 인생네컷 포토 부스를 운영해 범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합동 미션 코스를 모두 수행한 가족에게는 미션 완수증과 상품을 증정해 호응을 얻었다.

양수군 담양경찰서장은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친근한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여수해경, 웅천 마리나항서 해양정화활동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웅천 이순신마리나항 일원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여수세계세탁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에 위한 지역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화활동에는 (사)탄소중립실천연대, IBK중소기업은행 미래네봉사단, 명예환경감시원 등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상 부유 쓰레기와 해저 침적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명예감시원들은 페다이어, 로프, 플라스틱 등을 수중에서 인양했다.

장동연 탄소중립실천연대 해양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